

조선시대 이상적 관료상

고양 청백리

김종순

청백리는 관직 수행 능력은 물론 청렴, 근검, 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을 일컫는다. 고양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이다. 고양의 청백리는 누가 있었으며, 청백리 정신이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글. 사진. 이영찬(고양시씨족협의회 명예회장)



김종순 묘소의 비석



청백리 정신의 의미는?

청백리란 예로부터 청빈한 생활을 하며 관직에 올라서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 봉공하는 선비의 전형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다시 말해 마음이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일컫는 말로 벼슬자리만을 터하고 백성을 수탈하며 나라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폭리를 취하는 탐관오리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자애, 청렴, 절용을 청백리의 조건으로 들기도 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렴한 관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조선시대에는 청백리 제도를 운영해 탕월한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관리를 청백리에 녹선하여 타의 모범이 되게 하였다.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자 충절의 고장인 고양에는 어떤 청백리가 있었을까?

육조 청백리 김종순

고양의 청백리로는 조선시대 세종부터 성종까지 여섯 임금을 섬긴 육조 청백리 김종순이 있다. 김종순은 1427년(세종 9년) 23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33세가 되던 1437년(세종 19년)부터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 1439년(세종 21년)에는 종7품인 전농시의 직장으로 승직하였고 같은 해 문과에 급제하여 종5품인 중부령에 제수되었다. 이는 관직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종5품에 다다른 매우 빠른 출세로 볼 수 있다. 김종순은 이후에도 청선한 선비들의 중요한 핵심 보직을 의미하는 청요직으로 승정원 도승지, 한성부 판윤,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특히 김종순은 경주김씨 일문으로 세종에서 성종까지 여섯 명의 임금을 모셨으며, 세조대에는 3년 동안 승지로서 세조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참여하며 육조 청백리로 녹석되었다.

그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김종순이 경기 도관찰사로 근무하고 있던 1463년(세조 9년) 봄에 임금이 경기고을을 순행하다가 내신에게 명하여 행탁(여행용 자루)을 점검해 보니 쌀과 콩 두어 말만이 있었다. 이를 본 임금은 청렴하고 간소함이 너무 지나쳐 관찰사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즉, 임금을 모시고 경기도 지역을 순행하는 역할을 하는 관찰사의 행탁에 들어 있는 식량이 너무 적어 밥도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것으로 그의 검소함을 엿볼 수 있는 일화이다.

또한 김종순은 백성을 생각하며 진휼을 장려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세조에게 상소를 올려 임금이 잿사냥을 나가는 것을 경제하며, 기근이 잇달아 발생해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진휼에 힘써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언하

였다. 이러한 강직한 직무 수행은 세조의 신뢰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청백리에 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종순은 1483년(성종 14년) 7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생애에 대해 성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김종순은 여러 조정을 두루 섬겨서 시사에 숙달하고, 비록 드러난 자취는 없을지라도 또한 지나친 일도 없었다.' 이처럼 정사를 큰 흠결 없이 청렴하고 무난하게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는 생애를 보낸 것이다. 그의 시호 역시 공호(恭胡)라고 하여 일을 공경히 하고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고(恭) 나이가 오래도록 장수하였다는(胡) 의미를 나타낸다.

공호(恭胡)의 뜻

경사공상공(敬事供上恭)

- 일을 공경히 하고 윗사람을 잘 섬겨 모시는 것을 恭이라 하고, 미년수고호(彌年壽考胡)
- 연치가 오래도록 장수한 것을 胡라고 한다.

선조의 가르침은 미래세대의 이정표

며칠 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김종순 묘소에 다녀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백리로서의 면모를 잊지 않았던 그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김종순은 46여 년간 청렴하고 청백한 공직자로서 오늘날의 공직자 윤리의 모범이 될 훌륭한 선조이다. 우리는 훌륭한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정표로 삼아 미래로 전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성장하는 동력 미래세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등불이 되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고양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인 김종순의 청백리 정신을 본받아 미래세대에게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육조 청백리 김종순 묘